광주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전국 1위

지난해 전국 300가구 이상 9226단지 중 196곳이 회피

광주 5.9%·전남 2.5%·전북 3.6%…전국 평균은 2.0%

지난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된 가운데 광주 지역 아파트의 미시행 비율이 5%를 넘는 등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 제고 차원의 절차인만큼 공식적인 회계감사 회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가구 이상 외부회계감사 대상단지 9226개 중 9040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완료하고 186개 단지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평균 2.0%의 미이행률을 기록했다. 외부회계감사를 하지않은 186개 단지 중 176개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제외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각각 426개 단지와 281개 단지 중 401개 단지와 274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실시, 각각 94.1%와 97.5% 이행률을 기록했다.

광역시도별로는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전체 대상단지 모두가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했으며 나머지 16개 시도 중 서울, 광주, 대구 등 6개 시도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미이행한 경우가 발생했다.

대상단지 대비 외부회계감사 미시행 비율로는 광주가 5.9%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6%, 세종시가 3.4%, 대구 3.2% 순으로 높았다. 전남은 2.5%로 전체 평균 2.0%에 근접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23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제외해 경기도 47개 단지에 이어 가장 많았다. 서울 18개 단지, 부산·대구 16개 단지, 전북 14개 단지, 전남 6개 단지 순이었다.

문제는 의무화된 외부회계감사를 입주민 동의로 스스로 제외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단지가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역시 7월 현재 전국적으로 60개 단지가 입주민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스스로 제외하고 있으며 경기와 전북에서 각각 8개, 강원 7개,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6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재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장은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는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유착 등 부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관리비 납부의 주체인 입주자 스스로가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리비 투명성이나 관리서비스 제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투명한 집행을 감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수증 감사와 절차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빅스포 전력 신기술 체험관 위한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전시회(빅스포·BIXPO) '전력 신기술 체험관'이 전력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과 증강현실 등 콘텐츠를 체험하기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4차 산업혁명 열띤 토론…체험프로그램 풍성

광주 DJ센터 한전 빅스포 2일째…EPRI-한전 MOU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일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에서 전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CTO포럼과 EPRI TI(미국전력연구원기술혁신고위급회의)를 가졌다.

전력에너지 분야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는 CTO포럼은 NYPA(美, 뉴욕전력청), 아메런(美, 미주리州 전력회사), SGCC(中, 국가전망) 등 23개국 38개 글로벌 전력회사 CEO 및 CTO 42명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유틸리티의 미래'를 주제로 심층토의를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EPRI(미국 전력연구원) CEO인 마이크 하워드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로의 전환'을 테마로 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이어 '디지털 유틸리티와 기술혁신'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션 2에서는 아메런(Ameren, 美 미주리州 전력회사) 부사장인 스티브 키드웰(S. Kidwel)의 발제에 이어 CEER(유럽 에너지 규제기관 위원회) 사무총장인 앤드류 에브릴 등 패널이 '디지털 유틸리티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발표하고 '디지털 유틸리티,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EPRI TI Summit 에서는 '청정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의 효율 향상'이란 주제로 토론을 펼치며 3일에는 '통합에너지망(IEN)의 구축' 과 '혁신을 위한 국가간 공조'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EPRI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EPRI TI Summit이 올해는 박람회 참가자 모두에게 개방하는 Open Session으로 진행된다. 'KEPCO의 기술역량 강화 및 기술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EPRI와 한전은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및 제반시설 기술, ESS, 전력망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가한 CTO포럼과 EPRI TI Summit을 통해 전력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확산될 것"이라며 "BIXPO를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의 에너지산업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인도네시아 광통신 전시회 참가

국내 기업 1천만달러 수출 계약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최근 인도네시아 광통신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광·융합 기업이 총 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산업진흥회는 지난달 25~31일 지오씨 등 광통신, 발광다이오드(LED)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조명 관련 19개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광통신 전시회에 참가했다.

이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 공동관을 구성해 제품을 전시하고 현지 유력 바이어와 상담을 벌인 결과 지오씨가 3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는 등 총 53건 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

광산업진흥회는 또 전시회 참여 기업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 현지 지방정부 및 기업과 LED 조명 시범설치 사업을 논의하고 수출 상담 실무 협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광산업진흥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2차 한-독 OLED국제 기술교류회'에 참가, 한-독 OLED조명 프로젝트 공동 개발 및 표준화에 대한 협의와 현지 OLED 조명 기업을 방문했다.

(주)필룩스 등이 참여한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양국 기업간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등 국내 OLED조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및 마케팅 분야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용진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독일 등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프로젝트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6.36 (-10.11)
- 금리 (국고채 3년) 2.13% (-0.01)
- 코스닥 694.96 (-0.81)
- 환율 (USD) 1114.40원 (-0.10)

농협광주본부 '농업가치 헌법반영 캠페인'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지난 1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농협광주유통센터 앞 광장에서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 캠페인'과 함께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 캠페인은 농협중앙회가 내년 예정된 헌법 개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박태선 본부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명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

광주세관,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간담회

광주세관(세관장 양승권)은 2일 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무역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드 갈등 및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시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 생략, 보세창고 이전시 보세사 등록 절차 개선 등 현장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됐다.

양승권 세관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향후에도 기업과 관세행정이 함께 발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영광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가능
최근 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3천만
매가 9천4백

직매 010-6670-9800

수기동 상가 매매

천변로 전망최고
20층 중 6층

45평 (주차완비)
고급시설 (리모델링 5천만투자)

보 1천 월 60만

시세가 1억 5천
매가 9천7백 (융5천)

직매 010-6670-9800

경 매
㈜대신경매

북구 용전동 (냉동창고)
토지 700평 건물 500평
감정가 35억 → 최저가 19억4천

1) 서구 풍암동 아파트 지하상가
전용 50평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

2) 서구 벽진동 (주택)
토지 111평 건물 18평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 2억2천

3) 북구 문흥동 모아A.P.T (33평)
감정가 1억9천5백 → 최저가 1억3천6백

4) 광산구 신창동 부영A.P.T (33평)
감정가 2억3백 → 최저가 1억4천2백

5)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 9층중 2층상가)
토지 23평 전용 86평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8천

6) 장성군 북일면 (병원)
토지 33,659평 건물 1,505평
재활 요양병원
감정가 32억 → 최저가 23억

010-7384-7800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 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6670-9800